

# 2015년 지방 교육청 A책형 해설

제공 : 유두선 교수

1. 주성분은 주어 · 목적어 · 보어 · 서술어이다.

① 목적어 ② 보어 ③ 부사어 ④ 주어

정답 ③

2. ① 나와 너를 비교, 또는 영수와 나를 비교하는지 모호

③ ‘나를 사랑하는’ 것이 ‘그녀’인지 ‘그녀의 친구’인지 모호함.

④ 넥타이를 매는 것을 완료했는지 진행중인지 모호함

정답 ②

3. <보기>의 ‘마음’의 뜻은 ‘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’이다. ③  
번도 같은 의미

①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  
으키는 작용이나 태도

② 사람의 생각, 감정,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

④ 사람의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

정답 ③

4. ④ ‘고모’는 아이들의 호칭이다. 아가씨, 아기씨로 호칭해야 한다.

정답 ④

5. ③ 제끼고 -> 젖히고

정답 ③

6. ② 판넬 -> 패널 ③ 콘트롤 -> 컨트롤 ④ 카스테라 -> 카스텔라

정답 ①

7. ① 이 매장에서는 -> 이 매장은

② 녹색관광을 즐기고 참여하는 -> 녹색 관광을 즐기고 녹색 관광에 참  
여하는

④ ‘이 사업’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모호한 문장이다.

정답 ③

8. ① ‘ㅊ’의 대표음은 ‘ㄷ’이고 ㄷ과 ㅎ이 축약되어 ‘ㅌ’이 된다.

정답 ①

9. ㉠은 ‘큰다’로 활용하지 않으므로 형용사

㉡은 ‘큰다’로 활용하기 때문에 동사

㉢은 부사 ‘다’를 수식하므로 부사

㉣은 시간을 뜻하는 명사

정답 ④

10. ① ‘ㄹ’ 다음에 오는 ‘듯하다’는 보조용언으로 앞에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된다.

② 먹(어간)+듯(어미), 어미 뒤에 어간이 올 수 없으므로 ‘한다’는 띄어 써야 한다.

③ ~는(관형사어미) 뒤에 ‘듯이’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쓴다.

④ 말하(어간)+았(과거시제 선어말어미)+듯이(어미)

정답 ②

11. 어간만이 변하는 불규칙은 ‘ㅅ, ㄷ, ㅂ, 우, ㄹ’ 불규칙이 있고,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은 ‘여, 러, 너라’ 불규칙이 있고, 모두 변하는 불규칙은 ㅎ 불규칙이다.

① ㅂ불규칙, ㄷ불규칙 ② ㅂ불규칙, ㅎ불규칙 ③ 러불규칙, ㄷ불규칙

④ 러불규칙, ㅎ불규칙

정답 ②

12. 마지막 부분에 부패하면 탄소가 대기로 방출된다고 했다. 탄소가 사라진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.

정답 ④

13. 두번째 단락에서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은 상호보완적(+)이라 했고 세번째 단락 시작에서 순수 예술의 미감과 일상적 미감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했으므로 상호보완적(+)이다.

정답 ①

14. 단어의 뜻을 본문에 적어 놓고 읽어보자. 어색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.  
④ 가능성이 실현된다는 것을 시작된다는 의미의 ‘비롯된다’로 바꿀 수 없다.
- 정답 ③
15. 집단 사고와 집단 지성의 차이점을 제시하여 집단 지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.
- 정답 ①
16. ⑤ ‘나[吾]’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관련이 있다.
- 정답 ②
17. 본문의 내용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.  
⑦ 언행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이거든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뜻  
⑧ 세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조있게 꿋꿋이 행동함을 비유한 말
- 정답 ②
18. (가)는 화자를 사물에 비유한 것이 없다.
- 정답 ④
19. ⑨은 앞의 내용을 볼 때 도시 생활에 대한 만족감일 수는 없다 현 상황에 대한 자조적 웃음으로 보아야 한다.
- 정답 ④
20. ① 다시 더 한번... 에는 망설임이 표현되어 있다.  
② 가마귀와 강물을 통해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.  
③ 행나눔을 통하여 망설임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. 정서적 안정감과는 거리가 있다.  
④ ‘ㄹ’음을 통해 음악성과 강물의 흐름을 형상화 했다.
- 정답 ③

## 총평

2015년 교육청 문제는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평가원에서 출제하여 기존의 문제와 확연히 다르게 출제되었다. 한 마디로 문제가 아주 세련되고 수능식 유형에 더 가까워졌다. 문법 10문항 어휘 3문항 독해 3문항 문항 4문항이 출제되었다. 특히 문법은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어 공무원 시험 문제의 모범이 될 만했다. 독해와 소설 지문은 수능 문제와 같은 길이가 출제되었고 한 지문에 두 문항이 출제된 것이 특이한 점이다. 앞으로 공무원 시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문제다.